



## 녹색 바람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21세기를 준비한다

민간환경단체 배달녹색연합

환경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 '배달녹색연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배달녹색연합 사람들은 환경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곳의 환경 문제를 문제로 제기한 장본인이 바로 그들인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 즉 배달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박이 배달환경과 배달문화를 되찾기 위해 1991년에 만들어진 배달녹색연합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틈을 메우고 환경 보전에 있어 정부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다른 환경단체들과 함께 참 환경, 참 문화의 꽃을 이 땅에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환경단체이다.

이들은, 환경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의 입장은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이들은 환경연구소, 환경아카데미, 생태연구소, 환경과 자

연철학연구소를 두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연구 제시하기도 하고 전국 12개 도시 1만 5천여 회원과 함께, 맑고 있는 환경의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며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이나 시민운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여 나누어 주기도 한다.

70,80년대의 환경 운동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대중적이며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그네들의 활동상이다. 배달녹색연합 사람들은 한 겨울에도 한강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994년 1월 당시 낙동강 오염 사태를 비롯한 정부의 물 정책에 항의하며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한강물에 맨몸을 던졌었다. 그들은 핵폐기장 건설반대 현장이나 기름유출로 오염된 바다 때문에 생업을 꾸리지 못하게 된 곳의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우리가 파괴한 자연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 문화 기행을 기획하기도 한다. 올해들어 첫번째로 오는 4월 14일에 강화도 갯벌로 기행을 떠난다.

이들은 또 오염 환경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다. 한 예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생태적으로 오염이 덜된 경기도 하남시를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도시로



가꾸도록 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또 하나의 활동은, 신물산장려운동이다. 1920~30년대에 한민족이 거족적으로 전개했던 경제자립운동인 조선물산장려운동을 되살려 환경과 경제와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들은 또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쉽지 않은 우유팩 대신 유리병을 사용해야 하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어 공기를 맑게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배달녹색연합은, 환경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부터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대기, 온통 쌓여만 가는 쓰레기들,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물, 오염된 먹거리들... 이 모든 환경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달녹색연합과 같은 민간환경 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단체의 활동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삶의 현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㉞



## 강화도 갯벌 기행

‘갯벌은 바다의 끝이며 육지의 시작이다’

갯벌은 바지락, 갯지렁이, 게 등 수천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수십만 종에 이르는 생물들에 의해 육지의 오염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 천혜의 자원인 갯벌이 매립되고 오염되어 어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배달녹색연합이 '96년 바다의 해를 맞아 첫번째로 기획한 강화도 갯벌 기행에 참가하시면 갯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으며 갯벌의 보존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고 보존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시 : 1996. 4. 14.

참가비 : 3만원

문 의 : 배달녹색연합 (325-5525)